



경공한

안내지와 함께 떠나요~

## 꼼꼼한 안내지는

바쁜 하루하루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며 걷기 좋은 길을 찾아 나서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동네의 사소한 풍경을 바라보고 살펴보면 어떨런지요? 그 속에서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은 또하나의 힐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 순서

- 02 순서
- 04 준비하기
- 05 5코스 왕숙천물내용길  
※5코스는 완주가 안되요~

- 11 7-1코스 산림욕길
- 19 7-2코스 산림욕길
- 23 8코스 고모리산성길

◆코스에 있는 길 이름은 꼼꼼한 안내지를 만든 구성원들이 그곳의 특징을 살펴서 지었습니다.

- 27 광릉숲 둘레길 스케치
- 29 광릉숲 둘레길8코스 전체 지도





## 꼼꼼하게 준비하기!!

둘레길 난이도를 확인해주세요!!

- 난이도** ★☆☆☆☆ 하 : 쉬워요!
- 난이도** ★★☆☆☆ 중 : 조금 힘들어요!
- 난이도** ★★★☆☆ 상 : 힘들어요!
- 난이도** ★★★★★ 최상 : 당신은 강철 체력!

### 둘레길 소요시간

운동량이 적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어요.

### 운동화 & 트레킹화

둘레길 구간 마다 높 낮이가 다르지만 운동화 보다 트레킹화가 편해요.

### 식수 & 간식

둘레길에는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중간중간 마을을 이용하세요. 식수와 간식은 미리 준비하는 센스!  
 산행중 간식은 체력이 소진되기 전에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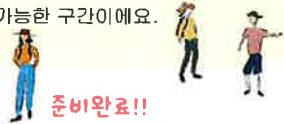
### 일회용 물품 & 쓰레기

둘레길에는 화장실도 쓰레기통도 없어요.  
 우리도 LNT를 실천해요!!

### 둘레길 시작하기전 소소한 TIP



- \* 5코스는 사유지 구간이 있어 완주 할 수 없어요.  
 진점음에서 출발~ 뷰포인트까지만 가서서 회기하세요.  
 포천시에서 출발~ 마을안길과 사유지구간 전까지만 가능하세요.
- \* 6코스는 미조성 구간
- \* 7코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구간(광릉숲,광릉)이라 볼거리가 많아요.
- \* 8코스는 예쁜 카페와 맛집 투어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준비완료!!  
 이제 출발할까요?



꼼꼼하게 걸어봐요

5코스

왕숙천물내음길



**진점중학교 ~ 마명 1리 마을회관 8.4km 제5코스**

**주소** 1번, 707번, 23번  
 \*더이상 갈 수 없는 구간을 넘어 가려면 광릉농협앞에서 7-2번을 타세요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641-1

**난이도** ★★☆☆☆ 중 : 조금 힘들어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중요 팁**

- ▶ 구간은 길지만 중간에 되돌아 와야해요.
- ▶ 5코스 부포인트 가기 직전이 조금 가파르니 마을 단단히 먹고 걸으세요.

**표지판 내용**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둘레길 5코스 이용안내>  
 365봉 ~ 마명 1리마을회관 구간은 정비 예정으로 이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중학교(3.1운동기념비) — 부평리 생태습지 — 크낙새죽구장

아명1리마을회관 — 뷰포인트에서 (회기)



### 3.1운동 기념비

- 우리 동네에도 유관순 아저씨가 있었다!!



1919년 3월 1일 경성 충로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남양주 진접에서도 만세시위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봉선사 스님 김성암이 평소 뜻을 같이 하던 이순재 등과 봉선사 서기실 에다 비밀리에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등사판을 이용 하여 유인물 200매를 만들어 29일 밤에 진벌리 등 4개의 동리에 나눠주었다. 3월 30일 광릉내 주재소 앞 광릉천변에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 김성암과 이순재 등 많은 주민이 일경에게 체포되니 이것이 진접의 제1차 만세운동이다.

뒤늦게 유인물을 보고 모인 점동리 주민들도 3월 31일 역시 광릉천 자갈밭에서 100여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다가 다수가 체 포되었다. 이것이 진접의 제2차 만세운동이다.

불들려간 주민들은 징역 6월, 1년, 1년 6월 등을 받았는데, 이순

재 아저씨는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를 부르는 등 이른 바 수형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3년의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우리 동네 주민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동네 가 시시한 동네가 아니며 우리 동네에도 유관순 아저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기념비이다.

### 부평리생태습지



부평리 생태습지공원은 봉선사천, 엄현천, 학림 천, 왕숙천이 만나는 물줄기 만나 한강으로 합류 되는 맑고 깨끗한 하천이 지나고 유네스코 생물 권 보전지역(7코스)으로 갈 수 있는 둘레길 경유 지이기도 하다.

남양주 오두교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 올 수 있다. 봄이 되면 노란색, 흰색 들꽃의 향연이 펼쳐지며

산책하고 쉴 수 있는 튼튼한 그늘막과 작은 무대도 있어 주민들의 소소한 문화생활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이다보니 밤이 되면 빈뎃불이가 나올만큼 멋진 습지공원이다.

### 작고 예쁜 마을공동체 정원



2018년 녹색자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만들어진 녹색심터 정원이 있다.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쓰레기가 난무하여 고심하던 끝에 마 을주민이 함께 만들고 가꾼 화합의 공간이며 현재는 광릉5일 장이 열리는 주변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 뷰포인트

5코스 진접중학교에서 왕숙천 물줄기를 거슬러 습지와 가파른 나무계단을 지나 평 야처럼 넓은 길을 지나 조금더 오르다 보 면 힘도 들고 목도 마를 지점에 다다른다. 둘레길에서 살짝 왼쪽길으로(4.5km 지점) 빠지면 마을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뷰 포 인트가 나온다. 맑은 날엔 용암산, 수리봉, 퇴위산 능선도 볼 수 있다.



간식타임이 시작되는 지점이니 잠깐 쉬며 물도 마시고 맑은 하늘도 눈에 담고 소소한 여유를 부려도 나쁘지 않다. 한여름엔 칠패꽃이 피어 꽃향기도 나서 노천 카페 부럽지 않을만큼 시원한 바람이 더워도 식혀준다. 마명리 방향쪽으로는 사유지 구간이라 더 걸을 순 없지만 꼭 멋진 풍 경을 감상하고 가길 권장한다.

5코스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자작나무 숲도 있던 울창한 숲이 20년에 산불로 인해 너른 평야처 럼 바뀌었다. 시에서 22년 재정비 하여 더 맑끔해진 코스로 바뀌었지만 몇 십년을 잘 자란 울 창한 나무 숲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다시 숲이 되려면 100년 넘게 걸린다고 한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좋겠다.



### 마명리 유래

마명리라는 이름은 말 울음소리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먼저 조선 세조가 자신의 장기(葬地)를 찾아다니다가 이곳을 지날 때 말이 갑자기 크게 울고는 지금의 광릉 자리까지 달려가서 멈췄다는 전설이 있다. 한평 조선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갈때 이곳에서 말이 울며 가기를 멈춰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어 간 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모두 말 울음과 연관된 지명으로 말울이, 말구리, 말우리, 마명 등으로 불렸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명리** [馬鳴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전주이씨 열녀 정문

열녀정문은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문(旌閭)인데 속종 때의 학자로 의학뿐 아니라 지리에 정통하여 [여지도(輿地圖)]를 만들고 [지도연의(地圖衍儀)]를 저술한 황엽(黃暉)이 전주 이씨의 남편 황효경(黃孝謙)의 종손이다.

황희의 6세손인 주부(主符) 황효경의 처 전주 이씨는 병자호란 때 오랑캐의 능욕을 피하기 위해 지니고 있던 칼로 자결하였다. 포천에는 12명의 정문을 받은 열녀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다.



꼼꼼하게 걸어봐요

7-1코스  
혼자 걸어도 좋은길



**부평생태습지~광릉 3km**

**제7코스 1구간**

2번 (장현리 방면 마을버스 타고 봉선사 종점)  
21번 (광릉내종점)

서울방향에서 오는법 :  
오남역 (4호선) 하차 23번 타고 광천마을 광릉시장 하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66

**난이도 ★☆☆☆ 하 : 쉬워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 지도 중요 팁**
- ▶ 봉선사, 경희대사회교육원 입구 부터 테크길이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어요!
  - ※ 테크길은 한줄로...
  - ▶ 혼자 걸어도 좋은 길! 남녀노소 누구든 걸기 좋은 길!
  - ▶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더 운치 있는 길이에요! (사계절 추천)
  - ▶ 화장실이 없으니 봉선사 입구 화장실에 꼭 들렀다 가세요!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있어요!



한여름방엔 반딧불이가 나와요! → 부평생태습지



부평리 생태습지

봉선사

광릉

능내교



봉선사(奉先寺)

봉선사는 고려시대부터 있던 절로 본디 이름은 운악사였다. 세조가 세상을 뜨고 광릉으로 댈 자리가 정해지자,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는 이곳 운악사를 원찰로 지정하여 재건축 후에 이름도 봉선사로 고쳐 부르게 했다. 봉선(奉先)이라는 말 자체가 선조를 받든다는 뜻 아닌가. 잘라 말하면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한 절로 자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봉선사 입구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있다. 살아온 햇수를 가늠 할 수 없지만 나무 관세음보살을 절로 옮겨 하는 묘한 기운을 간직한 나무인데 원찰로 지정한 후 정희왕후가 손수 심은 것이라 한다. 일주문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연꽃이 피는 못이 꽤 너르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으로는 스님들의 추모비, 행적비의 부도가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다. 그 줄 끄트머리쯤에 그동안 봉선사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불교의 맥을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새겨놓은 봉선사 중창비가 있다.

승과평터 표지석을 보면 조선 중기때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같은 전국 고승들의 과거시현인 승과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낡은 건축물을 손질하여 고쳐 사용한 이야기 혹은 아예 헐고 새로 지은 이야기 등이 주옥 이어진다. 특히 전수 목조건물이다 보니 전란에 불에 타 없어지기가 일쑤였다. 그러면 다시 짓고 또 손실되고 다시 짓고... 봉선사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 통에 절 전체가 불탄 것을 이듬해에 다시 짓고, 100여년 뒤 개보수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다가 일제강점기로 이어진다.

봉선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운허 님이다. 운허스님은 이렇게 봉선사 중창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중창비 옆에 나란히 뜬금없이 서 있는 춘원 이광수 기념비와도 관계있는 사람이며, 우리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광동중학교의 설립자이자 초대교장이기도 하며, 국내 최초로 불교 사전을 편찬하신 분으로도 유명할뿐더러 종교인으로서의 삶 또한 분이 되는 분이였기 때문이다.

**운허는 법호이고, 용하는 그의 법명이다.** 보통 사람일 때의 그의 이름은 학수. 이학수였다. 이학수 시절 그는 일제의 침략에 당당히 맞서 싸운 청년항일투사였다. 만주 봉천에서 독립운동기관인 광한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국내단체와의 연계를 비밀리에 잠입했던 이학수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긴 곳이 강원도 봉일사였고, 그곳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 후 교육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만주를 오가며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8·15해방을 맞았다. 전 국민이 들떠 좋아만하던 그때 당시 봉선사 주지인 운허 스님은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재다. 사람이 필요하다.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곧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하여 광동중학교를 세운다.

봉선사 입구 옆으로 숲속의 궁전 같은 느낌을 주는 경희대평화복지대학원 부지가 원래는 광동중학교 자리였다. 봉선사 입구에 나무로 지은 학교 건물이 6·25 전쟁 중에 불타 버리자 몇 년 후 지금 그 대학원 부지에 이층 양옥의 학교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후에 지역이 좁고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학교 부지를 팔고, 1975년 현재의 장현으로 학교를 옮겨갔다고 한다.

운허스님은 또한 국내 최초로 불교사전을 편찬하신 분으로, 동국대학교 역경대학원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주요 경전을 번역하신 분으로도 유명하다. 스님은 1980년 봉선사에서 89세에, 그리고 승려가 된 뒤로 치는 나이 법랍 59세로 돌아가셨는데 현재 봉선사 중창비 바로 옆에 스님의 부도가 나란히 서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뜻밖의 기념비가 서있다. 주인공은 바로 춘원 이광수이다. 스님들의 비와 부도가 즐비한 이곳에 갑작스럽고도 엉뚱하게 그가 왜 와있는 것일까?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렸던 춘원 이광수.**

이광수와 운허스님, 즉 이광수와 이학수는 6촌간으로 어린시절 고향 평안북도 정주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자라났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광수는 친일작가로 지목받았다. 해방이 되자 춘원은 옥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광동중학교의 설립자이며 초대교장인 이학수가 춘원을 국어교사로 초빙하였다. 춘원은 크고 비장한 결심을 갖고 짐을 싸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왔다. 정신도 수양할 겸 봉선사에 와서 다경향실(茶淨香室)에 머물며 불교에도 빠져보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하며 차를 마시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욕이 다소 가라앉은 때에도 춘원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봉선사에서 설립한 첫째 학기 동안이었지만 그곳에서 국어와 작문 교사로 근무했고, 특히 광동중학교의 교가를 작사했다.



자신은 민족에게 비난과 배척을 받고 옥역을 만하다며 스스로 돌베개를 베고 고생했던 시절, 산간에 묻혀 세상에 나오지 않고 민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으로 지은. 일점일획이 다 자신의 흔의 사진이라고 했던 1948년의 수필집 [돌베개]에는 광릉 숲속에서의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 글 몇 편이 실려 있다.

현재까지도 이광수를 “광병적 친일 열렬 협력자”로 평가하여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좁은 대롱으로 대상을 보듯 실증 연구 없이 일제강점기 인물의 한 면만 편협하게 부각해 매국노로 매도하는 학계의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감싸주는 사람들도 있다. 평가를 어찌 내리든 이광수는 1950년 6월 한국 전쟁 때 서울에 있다가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곧 사망하였다고 한다.

**동선사는 한국전쟁 때 언덕에 위치한 삼성각을 제외한 전체가 불타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모두 근대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으로 소탈하고 고즈넉한 고찰의 느낌은 없다. 그렇지만 저 멀리 고려 광종 때부터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 년의 이야기가 면면히 이어져오는, 스토리가 있는 텃밭이다.



광릉(光陵)

도성에서 10리(4km)밖으로부터 100리(40km)안 사이, 왕릉은 이렇게 위치해야 한다. 왕위를 이은 다음 왕이 성묘를 갈 때 하루 거리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릉이 서울과 경기도에 흩어져 있다. 예외로 단종의 묘인 장릉만 강원도 영월에 있고, 전체 조선 왕릉 42기 중 북한 개성에 2기(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 한씨의 능인 재릉과 2대 정종과 그의 비의 능인 후릉)가 남아 있는데, 유네스코는 조선왕조 518년 27대에 걸친 왕과 왕비의 능 42기 가운데 북한 땅에 있는 2기를 제외하고 40기를 한데 묶어 2009년 세계문화유산 장부에 올렸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조선의 7대 임금, 세조의 광릉은 도성 밖 61리에 놓여 있다.

왕의 못자리를 고르는 것은 조선왕실에서는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일이다.

선조가 좋은 땅 소위 길지나 명당 자리에 모셔져 있으면 그 좋은 땅의 기운을 받아 후손이 번창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와 왕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 세조가 숨을 거두자 예종은 왕으로서 맞는 첫 번째 사업으로 아버지의 능을 만들어야 했다.

우선 터를 찾았다. 배산임수의 명당, 산과 물에 의해 좋은 기운이 가뒀진 곳, 그 정점인 강(岡:봉분)에 시신을 모심으로써 복을 기원 할 곳으로 경기도 광주, 현재 연세대 뒷산, 남양주 진접 세곳의 명당자리가 뒷자리 후보로 올랐는데 그중 진접의 이곳이 최종 선택되었다. 원래 이 곳은 정창손의 문중 선산이었다. 정창손은 김질의 장인이고, 김질은 사육신의 계획을 밀고한 바로 그자다. 한마디로 세조 집권에 기여한 실세로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이 정창손인 것이다. 하지만 왕이 그곳을 길지로 점찍은 이상 자기 조상의 묘를 모두 이장하고 선산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은 그런 정창손에게 쌀과 콩 100가마, 종이 100권 등을 보내 그의 상한 마을을 달렸다고 한다. 세조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장례는 5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시신은 얼음을 싸 부패를 막고 임시로 가묘에 안치시켰다. 왕의 무덤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왕은 곳 조선이므로 몇 백년이 흘러도 사태가 나거나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모래 한겨, 황토 한겨, 진흙 한겨 이렇게 다지고 다져서 쌓았다. 즉 흙을 다져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광릉은 조성 왕릉 중에서도 특이한 점이 많기도 유명하다.

“내가 죽으면 석실과 석곽을 사용하지 말고 병풍석을 쓰지 말라” 이것은 세조의 유언이다. 그냥 단순하게 듣고 흘리기 쉬운 말이지만 잘 새기어 보면 그 의미가 깊은 말이다. 돌은 다루기 까다로운 소재이다. 단단해서 쉽게 쪼개지지 않을 뿐더러 갈라지더라도 원하는 만큼만 쪼개지지 않는다. 돌은 투박하고 무겁다. 그래서 큰 돌을 옮기려면 사람이 다치거나 깔려죽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거중기 같은 것조차 없던 시절 게다가 경사진 그 높은 곳으로 덩치 큰 돌들을 옮긴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실제로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석물을 이송할 때마다 돌에 깔려죽는 이가 수십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왕의 무덤에 으레 써오던 거대한 석실과 석곽 병풍석을 쓰지 말라고 한것은 능을 간략하게 조성해 백성들의 부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민폐를 덜게 만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무덤방을 돌방으로 만드는 대신 석희다짐으로 막고, 무덤 둘레에 병풍석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난간석 만으로 간소하게 한것이 광릉이 남다른 이유 중 하나이다.

**돌, 무덤배치이다.**

최초의 동원이강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왕과 왕비를, 다시 말해 부부를 함께 묻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광릉은 두 부부를 좌우로 따로 묻어 두 봉분을 한정자각으로 묶는 새로운 배치를 하였다. 이는 동원이강이라 부르는데 두개의 봉분에 하나의 정자각이라는 형식은 당시

로선 일대 변화라는 것이다. 정자각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볼때 지붕의 모양이 고무래-정(丁)자 모양이라 해서 정자각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하는 영역으로 바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다. 이곳은 지금도 해마다 세조의 제삿날이 돌아오면 전주 이씨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셋, 참도(參道)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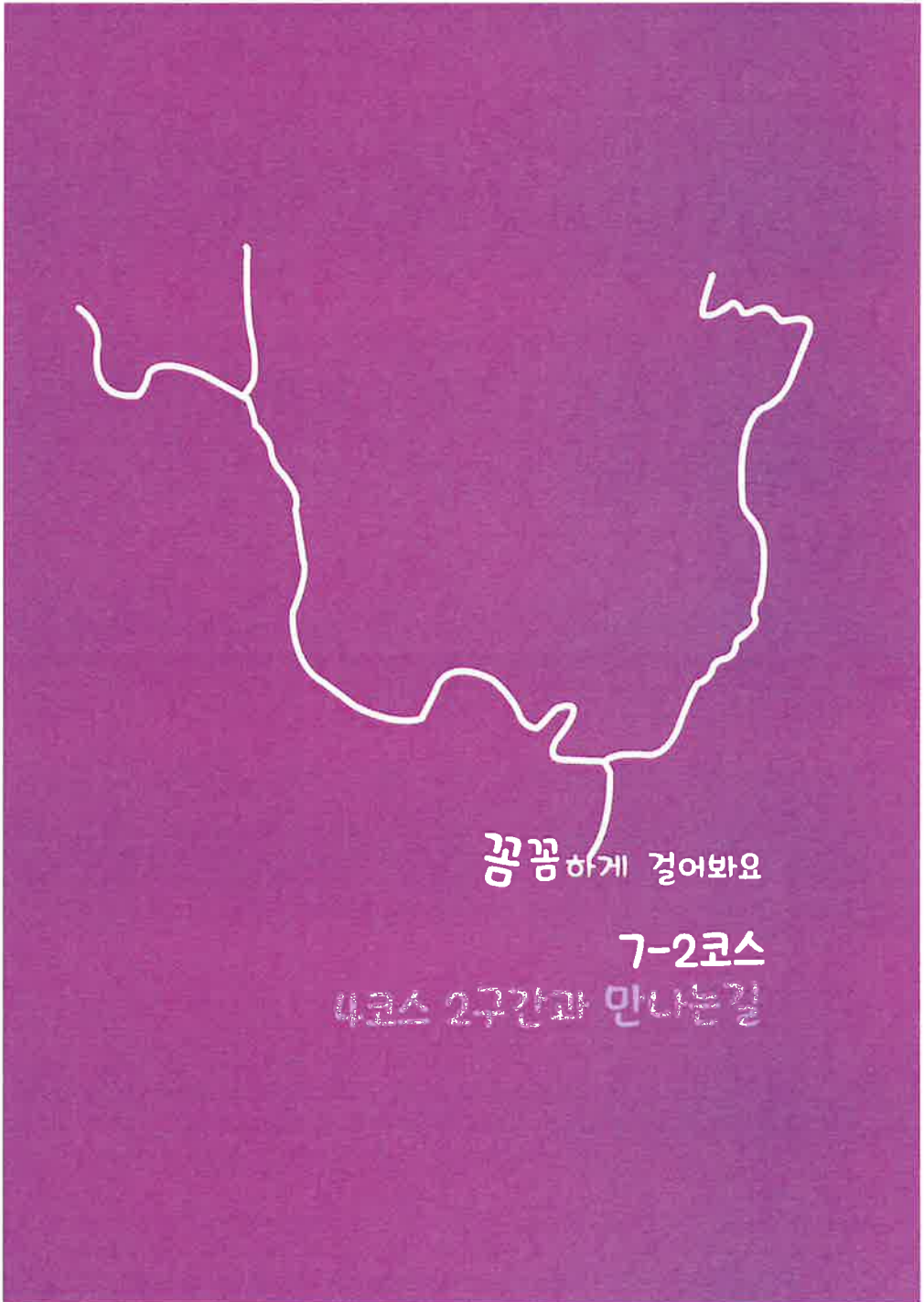
참도란 홍살문부터 정자각까지 놓여있는 길이다. 홍살문은 여기부터는 성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로 붉은색을 칠해 세워놓은 나무문인데, 지붕 없이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박아 놓았다 하여 홍살문 또는 그냥 홍문 이라고도 부른다. 이 홍살문을 통과하면 바로 앞으로 앞으로 넓적한 돌이 2단으로 꼭 깔려 정자각까지 연결돼있기 마련이다.

2단 중 약간 높은 곳은 왕의 훈령이 다니는 길-신도(神道)이고, 조금 낮은 곳은 임금의 제사 지내러 정자각으로 걸어가는 길-어도(御道)이다. 다른 왕릉에는 당연히 있는 이런 참도가 광릉에는 없다. 그냥 흙길이다. 처음에 왕릉을 조성할 때는 분명히 참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대체 무슨 연유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참도가 없는 것, 이것도 광릉이 유난히 다른 점이다.

**넷, 하마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릉이다.**

하마비는 일종의 존경심의 표시로 조선시대 종묘나 궁궐문 앞에 세워놓는 돌로 된 비석이다. 가마나 말을 타고 있다면 이곳으로부터는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사람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서 가야 한다는 뜻의 <대소인원개하마(大小人員皆下馬)>가 새겨져 있다. 왕릉의 하마비 앞에서는 왕도 예외 없이 어가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 이 하마비가 여타 조선왕릉에는 사라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광릉에만 남아있다는 것이 광릉이 남다른 이유의 마지막이다.

[봉선사 - 광릉이야기는 남양주시문화의집 "진점 속 깊은 이야기"에서 발췌]





광릉~이곡초등학교 4.7km

제7코스  
2구간



21번 (광릉내중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866

난이도 ★★★★★ 하 : 쉬워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지도 중요 팁 TIP

- ▶ 데크길은 한줄로!!
- ▶ 능내교에서는 뺑 조심!
- ▶ 긴 구간 화장실이 없으니 국립수목원이나 상점을 이용하세요!
- ▶ 커피가 맛있는 카페가 많아요!





### 광릉숲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 소리봉 죽엽산 축석령 일대를 사냥하러 자주 찾았다. 이 말은 곧 여기가 단순히 사냥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군사 훈련장소의 기능을 가지고 궁궐 수비대의 실전대비 훈련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의미라고 한다.

왕이 된 후 그는 근처에 자신이 묻힐 자리를 정하고, 이후 이곳 주변 산림도 보호하라고 엄격히 이른다. 얼마나 엄격하게 숲을 관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기록 돼 있다.

광릉을 지키는 능지기, 즉 능창봉은 비록 말단 9급 관리에 불과하지만, 우두머리인 영(領)이 되어 관할 부근 동리 곳곳에 그 밑으로 600명 가까이 산지기를 거느리며 이 일대 육백오십만 평의 숲을 관리했다 한다. 도둑나무를 하러다니다 붙잡힐 경우 그에 따른 구체적 처벌 방법이 실려 있는데, 만약 일반인이 아름다리 소나무 한그루를 몰래 베다가 잡히면 곤장 50대를 때려 백리 밖으로 추방시킴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벌을 주도록 했고 일반인이 아닌 관리, 즉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벌이다 걸렸을 경우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입산 금지 되어 있는 산을 들어갔다 걸리면 3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산림기본법이 있다.

광릉은 철종 때까지 조선의 역대 임금이 줄곧 참배해 왔고 그에 따라서 부속림인 광릉숲을 더욱 신성하게 여겨 엄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출입과 간섭을 제한했다.

이후로도 숲은 한국전쟁을 견디어내면서 현재까지 50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잠깐 쉬어가세요!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해요.

**직동삼거리~비득재 2.7km**

**제8코스**

21번 (광릉내종점)  
직동삼거리에서 86, 86-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난이도** ★★★★★ 하 : 쉬워요!

**길 찾기** 어렵지 않아요

**중요 팁**

- ① 8코스 고모리길은 비득재 (2.7km) 까지이지만 고모리 저수지까지 안내표시판이 되어 있어요^^
- ② 8코스는 카페와 음식점이 많은 차도와 인도로 되어 있는 길이니 언제나 차조심 하세요!



직동삼거리

비득재

고모저수지



### 금메달 마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에 사는 모태범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딴 기념으로 포천시와 직동리 주민들의 뜻으로 금메달 마을로 명명, 그의 빛나는 성적 때문에 세계적인 빙상 선수인 모태범 선수가 시는 소흘읍 직동리가 그 메달 마을이 되었다. 직동 삼거리 입구에는 금메달 마을이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다.

### 죽엽산

높이 601m로, 백두대간 줄기가 의정부로 뻗어내리며 솟은 산이다. 국수봉(605m)·소리봉(536m)옆에 있으며, 큰 굴곡 없이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 있다. 산행은 큰넓고개나 직동에서 시작한다. 큰넓고개에서 출발하면 25분 정도 오른다. 257m봉과 570m봉을 지나 20여분을 더 오르면 정상이다. 하산은 남쪽 능선 고개를 넘고 죽엽등을 지나 마명교로 내려온다. 직동에서 출발하면 40여분 산을 오르다 고갯마루를 넘어 477m봉과 610m 봉을 지나 20여분을 더 오르면 정상이다.

### 비득재

고모리로 통하는 장령(長嶺)의 모습이 흡사 비둘기가 나는 모습과 같다 하여 鵙田嶺이라 일컫는다. 한자어로는 구현(鳩峴)이라고 한다. 비득재는 민족 정기를 이어온 약 290km의 한북정맥 중 한 구간으로 소흘읍과 고모리 직동리를 잇는 중요한 고개마루로 한북정맥 등산객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흘읍 고모리의 노고산과 죽엽산을 사이에 두고 형성된 고개인 비득재는 북쪽에서 발원한 하천은 포천천과 영평천을 거쳐 한탄강으로 유입되며 남쪽에서 발원한 하천은 왕숙천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된다. 현재 비득재가 있는 고모리에는 고모저수지를 중심으로 많은 음식점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어 서울 근교 드라이브 길로 유명하다.



### 광릉숲둘레길 스키치



광릉숲둘레길 스케치

